2023 년 5 월 7 일 "(가정의 달) 관계의 경이로움"(골 3:18-21)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가 자녀에게 가져야 할 양육의 태도와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막대한 부모의 영향

John Bradshaw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1 장에서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이 자기 가족에게 부정적 경험을 안겨준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이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의 부모가 어떻게 하셨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성경적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2] 노하게 하지 말라

자녀 양육에 대하여 바울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일관합니다(엡 6:4, 골 3:21).

부모는 자녀에게 말과 교훈보다 인격, 성향, 삶의 방식과 습관, 애착하는 그 무엇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양육 속에서 부모는 자녀와 다양한 애착관계가 형성됩니다.

안정형; 불안-양가형; 회피형; 혼동형 애착(Bowlby)

안정형 애착 관계는 부모로서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사랑으로 양육하려 애쓰지만 아이 입장이 아닌 자기의 기준에서 행동 지침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일방적 압박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배려한다면,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충분히 들어주면 아이들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녀의 말을 들으려면 먼저 부모에게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기 돌봄이란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으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롬 13:9). 가족 사랑은 나를 참되게 사랑함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나를 돌보며 양육할 때 아이들은 인격적이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써 부모 자식 관계 속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경적 양육으로 부모-자식 간에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내가 받은 양육의 특징을 말씀해 봅시다. 자녀가 있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2.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